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7월 7일(주일) 제1499호



기도로 연합하고, 기도로 준비한다!

‘714 기도대성회’ 7월 14일 오후 7시 13개 지역 거점교회
‘한국로잔 청년콘퍼런스’ 7월 13일 오후 2시부터 신길교회
‘참가자 한 끼 후원’과 ‘매일 기도’ 9월 28일까지 이어져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기도로 연합하고, 기도로 대회를 준비한다. ‘714 기도대성회’와 ‘로잔청년콘퍼런스’가 막 오른다.

714 기도대성회는 7월 14일(일) 오후 7시부터 전국 13개 지역 거점교회에서 열린다.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13개 지역 거점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면 된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민교회(이해영 목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열리는 714 기도대성회에 참석한다.

714 기도대성회가 열리는 13개 지역 거점교회 명단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lausann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 청년들에게 로잔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선교 동참을 독려하는 ‘한국로잔 청년콘퍼런스(이하 청년콘퍼런스)’는 7월 13일(토) 오후 2시 신길교회(이기용 목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에서 개최한다.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를 주제로 예배와 설교, 강의, 선교박람회 등을 한다. 청년콘퍼런스에서는 아이자야씨스티원(Isaiah6tyone)이 찬양예배를 인도하고, 최읍 선교사와 문대원 목사가 강의와 설교를 한다. 선교박람회도 한다. 청년콘퍼런스에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참가자 한 끼 후원’과 ‘매일 기도’도 제4차 로잔대회 마지막 날인 9월 28일(토)까지 이어진다. ‘참가자 한 끼 후원’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31401-04-303854(사단법인 한국로잔)으로 한 끼 식사 비용(2만 원)을 보내면 된다.

‘매일 기도’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나 아노키(Anoki) 기도 앱에 올라오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면 된다.

제4차 로잔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관련기사 3면).

문의: 010-5734-1819, lausanne.kor@gmail.com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수원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

수원온누리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창립주일 감사예배’를 7월 7일(일)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30분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설교하고, 대표기도는 세대별 공동 기도로 대표장로, 대표 권사, 대학청년부 MC, 차세대 학생이 함께 기도한다. 예배당 건축을 위한 건축헌금 작정도 한다.

7월 7일(일) 오후 2시 30분에는 ‘창립기념 축하 콘서트 및 전도집회’가 열린다. 2024년 전도대상자 70명과 외국인 노동자 65명을 초청했다. 방송인 조혜련, 가스펠 보컬 그룹 CRUX, 소프라노 정장미가 특선으로 섬기게 된다.

수원온누리교회는 2003년 국내 세 번째 캠퍼스로 창립되었다. 현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내걸고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다음 세대,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모집

2024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이하 ‘2024 어!벤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벤처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2024 어!벤처스는 7월 29일(월) 오후 2시까지 모집 및 서류 접수, 7월 30일(화)부터 8월 12일(월)까지 심사 및 선발, 8월 29일(목) 오리엔테이션, 9월부터 11월까지 비즈니스 리더와의 멘토링, 10월 10일(목) 중간 워크숍, 12월 7일(토) 최종결선대회를 치른다.

‘2024 어!벤처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비영리법인 가능)다. 팀의 핵심멤버 1명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웹진(aventure.simweb.me)에서 하면 된다.

이번 어!벤처스에서는 우수 기업에게 1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기회와 부상을 준다. 부상으로 총상금 3천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고(그랑프리 1천만 원),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랑프리 1개 팀에게는 미국 탐방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 7월 4일(목) ‘2024 어!벤처스 10주년 대회 개막식 및 사전설명회’가 열렸다. 어!벤처스 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 사업자, 전문가, 멘토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온 누리에 복음과 사랑을!

해외 143개 팀 2,532명, 국내 226개 팀 5,503명 참가

2024 여름 아웃리치가 본격 시작됐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온 누리에 복음과 사랑을 전한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7~8월 이어진다. 해외 143개 팀 2,532명, 국내 226개 팀 5,503명이 참가한다(7월 5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는 네팔, 일본, 튀르키예, 스리랑카, 몽골 등지에서 선교지 방문, 선교사 위로, 어린이 사역, 시설 보수 등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농어촌교회와 M센터, 기관, 군부대 등지에서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노방전도, 군부대 위문 등을 할 예정이다.

〈온누리신문〉에서는 2024 여름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미디어본부에서는 2024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짹자, 아웃리치!’를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 등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작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4)하거나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강부호 목사

사도 바울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순간순간 등장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인물들은 모두 한계가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는 일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인물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온전한 인물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 주셔야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는 약속은 구원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행 13:26).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행 13:27~29). 도리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해로운 인물, 자신을 위협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시도하는 설명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까지 했던 머리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눈앞에 등장해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정체성입니다. 그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행 13:30).

사람들은 예수님의 활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활동이 없으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넘겨주었던 그 메시야, 예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삶을 이끌기 시작하셔야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놓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행 13:32~33).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소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취된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행 13:34~35).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되새기면서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 분이시고, 그토록 중요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38~39절).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른 관계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실

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구원도, 망하는 일도
성경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 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40~41절).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좋은 약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일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 마지막에 이르러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응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의 길을 우습게 여기면 망하는 길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42~44절).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48절), 어떤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45절). 반대하고 모욕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고 주장해 왔던 것과 완전히 달라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기분도 나빴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못하도록 반대할 뿐만 아니라 모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간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지방에서 강제로 내쫓았습니다(50절). 복음에 관련된 말씀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46절).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입장을 우선해서 주장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진리는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즉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기를 중단하고 소멸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증거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일과 관련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49절).

사도 바울 일행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사회에 복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물결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자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보다 명확하게 알고,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많은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로잔운동 기획시리즈 - 3. 로잔을 말하다

“로잔을 말하다!”

제4차 로잔대회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와 함께

‘한 달 싸우기 위해 팔 년 양병한다’는 속담이 있다.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준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교회가 오는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를 정말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제4차 로잔대회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가 로잔운동의 의미와 취지, 로잔대회의 영향력, 제4차 로잔대회 논의 주제, 로잔대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도들의 로잔대회 동참 방법 등을 소개했다. 다음은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제4차 로잔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로잔대회가 생소한 성도님들께 로잔대회를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성도님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제4차 로잔대회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잔대회는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논의하고, 힘을 합하기 위해 시작된 모임입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첫 모임의 명칭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였습니다. 이 모임이 전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명해지면서 첫 대회가 열린 지역의 이름을 따 ‘로잔대회’라 불렀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일부 로잔대회의 성격을 잘못 왜곡해서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대회 이름만 봐도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잔대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시작된 모임입니다. 당시 전도와 세계 선교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다시 기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로잔언약’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다 같이 세계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서와 참가자들의 서약은 이후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전도와 세계 선교가 활성화되었고, 새롭게 제시된 과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많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로잔대회가 지금과 같은 복음의 큰 강을 이루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가 쇠락하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3차 로잔대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로잔대회들이 세계 교회와 선교에 끼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우선 로잔대회를 통해 복음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1960년대 교회 주류교단에서는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더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선교 무용론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시기에 빌리 그레함, 존 스토틀, 피터 바이어하우스 같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다시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재확인하고, 복음전도와 세계 선교에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전 세계 교회가 호응했고, 전도와 선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는 랄프 윈터 박사의 기여가 컸습니다. 그는 ‘선교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종족 단위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선교를 국가나 지리적인 단위에서 인종과 문화적인 단위로 접근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이 지난 1~3차 로잔대회에서 다뤄졌습니다.

또 한 가지 로잔대회의 중요한 공헌은 진보적인 교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사회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항상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기부터 약자들을 돕고, 사회적인 악습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존 스토틀 박사는 제1차 로잔대회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로잔언약’에 담아냈습니다. 제2차, 제3차 로잔대회는 제1차 로잔대회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로잔운동의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을 연합시켰고, 선교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모임과 대회를 통해 각 지역과 영역, 세대를 연결하는 기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선교와 교회의 부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까? 4차 로잔대회가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4차 로잔대회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모델로 본질과 사명을 나타내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토론하고, 연구하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역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역동적인 영성과 선교, 일상에서의 선교와 리더십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역별, 이슈별, 세대별 그룹들이 자유롭게 교제하며 모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로잔대회가 열린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복음화를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와 도전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많은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성공주의가 다음세대의 마음을 빼앗고, 동성애와 진화론, 무신론을 받아들이는 게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격하게 발달하는 디지털과 인공지능(AI), 환경 재난과 지구온난화,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4차 로잔대회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오늘날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중요한 25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분별하고, 극복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25가지 주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공청회를 통해 취합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 세계 인구고령화(The Global Aging Population), 새로운 중산층(The New Middle Class), 다음세대(The Next Generation), 이슬람(Islam), 디지털 시대의 성경(Scripture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Church Forms in a Digital Age), AI와 트랜스휴머니즘(AI & Transhumanism), 성과 성별(Sexuality and Gender), 창조세계와 취약계층 돌봄(Caring for Creation & the Vulnerable) 등입니다. 이 문제들은 어느 한 교회나 단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 교회는 항상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

리고 극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힘을 모아 대안을 찾고, 그리스도를 온 세계와 영역의 주로 선포하고,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에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제 목도 나눠주십시오.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일에 한국 교회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재정후원, 재능기부, 중보기도 등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지난 2년 준비기간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별로 연합기도회가 열렸고, 수많은 모임을 통해 한국 교회가 로잔정신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로잔대회에 동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7월 14일(일) 13개 지역 거점 교회에서 열리는 ‘714 기도대성회’에 참여해주시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로잔운동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끌어 오신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서울남부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민교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이해영 목사 담임)에서 함께 모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 기간에도 중보기도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연합중보기도모임이 열립니다. 대회장에서 가까운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화면으로 대회 장면을 보면서 참가자들과 프로그램, 강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이 함께 모여 기도의 제단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트타임 봉사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대회를 섬겨 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식사후원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참가자 한 명의 한 끼 식사가 2만 원입니다. 참가자들을 축복하고,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끼 식사를 후원해주시고.

제4차 로잔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섬기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국제본부 리더들뿐만 아니라 이재훈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등 한국로잔준비위원들과 봉사자들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현장참석자 5천 명, 온라인 참석자 5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과 비전을 열어가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대회가 가까울수록 로잔대회에 대한 유언비어와 잘못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고,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주시고.”

사랑부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최난숙, 박동희, 김혜숙 성도의 아주 특별한 경험과 고백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사랑부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이하 행복한 부부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6월 15일(토)과 16일(일) 진새골 사랑의집에서 첫 번째 행복한 부부학교가 개강했다. 행복한 부부학교는 장애인 자녀를 둔 사랑부 가정이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와 가정이 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행복한 부부학교는 사랑부 부모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사랑을 다시 누리고, 자녀와 부부를 위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장(場)이었다.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사랑부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에 참가한 성도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애인 자녀의 주 돌봄자 80% 이상이 부모인데, 그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 여기에 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보호자 사후 자녀 돌봄에 대한 막막함도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적 고립마저 발생시키고 있다.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듣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랑부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가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하다. 지난 6월 15일(토)과 16일(일) 열린 첫 번째 행복한 부부학교에 참가한 최난숙, 박동희, 김혜숙 성도의 눈물과 고백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행복한 부부학교 덕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회복될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축복의 통로

최난숙 성도(서초C공동체)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았다. 사실 그녀는 아들의 장애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었다. 25년 전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터라 더 힘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의 장애를 자연스레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장애가 있는 아들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섰다고 믿었다고 털어냈다.

행복한 부부학교가 이 사실을 재확인 시켜줬다. 특히 강미향 목사가 전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회복을 도왔다. 장애가 있

없든, 우리와 자녀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억하게 하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했다. 장애인 자녀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장애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더욱 힘써 양육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또한 행복한 부부학교를 섬기는 목사, 장로, 조장 부부, 교사들이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 자신도 어느 곳에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겸손한 섬김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언약결혼식’이었다. 결혼 30년이 지나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해야겠다고 계획했었는데,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언약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무척 행복했다. 행복한 부부학교 덕분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자녀 양육만큼 부부 관계도 소중하다

박동희 성도(양재 사랑부)는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자녀 양육만큼 부부 관계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 배움이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스스로 의사결정하거나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모가 매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많은데, 주변에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가 있었다. 바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통로라는

것도 배웠다. 물론 그동안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결국 내 중심으로 자녀를 바라봤기에 괴롭고 힘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존귀한 존재이고, 그렇기에 그 자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자녀 양육만큼 부부 관계도 소중하다는 배움이 특별하고 고마웠다. 늘 자녀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행복한 부부학교에 참석하면서 부부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야 자녀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동희 성도는 ‘언약결혼식’에서 아주 특별한 고백도 했다. 아내에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부부 십계명을 함께 적고,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로 기도했다. 자녀 양육보다 먼저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이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에게는 독립심을, 부부에게는 인정과 사랑을

김혜숙 성도(서빙고 꿈사랑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부부학교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선물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남편을 더 인정해 주고, 세워주는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아름다운 변화를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교육받으면서 경험했다. 사실 김혜숙 성도는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교육을 듣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부부 모두에게 의지가 있어야 하고, 바쁜 남편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게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행복한 부부학교에 참가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 십계명을 만들고, 함께 변화하기로 마음

먹었다. 새롭게 만든 규칙을 지키면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것 자체가 행복이었고, 큰 변화였다. 김혜숙 성도 부부는 벽에 걸린 부부 십계명을 한 번씩 읽으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혜숙 성도의 자녀는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네 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놀 도와줘야 한다. 그 때문에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는데, 행복한 부부학교에서는 아이를 따로 돌봐줘서 부부가 프로그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세상에도 장애 아동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행복한 부부학교처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힘을 얻고, 부부가 함께 온전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중심이 아이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결국 장애인 자녀를 돌보다가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숙 성도는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아이에게는 온 신경을 쓰고, 예쁘게 말하면서 정작 남편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를 더욱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로 다짐했다.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자녀를 따로 돌봐줘서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얻은 선물이었다.

결국,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은 부부가 장애인 자녀에게서 조금 벗어나 서로를 인정해 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 기회 자체가 회복이다. 아이에게만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는 독립심을, 부부에게는 인정과 사랑을 선물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의: 010-8567-1808

생명의 가치와 존엄한 죽음

1.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의 해외 현황과 부작용 3. 안락사의 실체와 의학적 문제점
4. 안락사 논의 전 선결과제 - 호스피스 완화의료 5. 성도의 죽음과 임종기 돌봄의 실제

안락사의 실체와 의학적 문제점

조력자살의 가장 큰 이유와 그 법안이 가져올 혼란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성산생명
윤리연구소 부소장)

2022년 타임지(誌)가 선정한 논픽션 1위에 오른 <사랑을 담아(In Love)>라는 책이 있다. 미국 소설가 에이미 블룸이 알츠하이머를 진단 받은 남편의 조력자살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남편 브라이언은 예일대 미식축

구 선수로 활동했고, 건축가로 40년 일했다. 67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그는 50대에 재혼한 소설가 아내에게 자기 모습이 차매 환자로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의식이 남아 있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 그 과정을 소설가 아내에게 부탁해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조력자살 및 안락사 문제에 논쟁을 일으켰다. 죽음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조력자살이 마치 존엄한 권리인 양 인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가는 남편이 조력자살을 결정하고 이행해 가는 끔찍한 이야기를 부부의 소소하고 사랑스러운 일상 이야기로 포장했다. ‘성취, 평화, 그의 숨소리와 눈물’ 등의 단어로 독자들의 감성에 호소했지만, 결국은 자살을 정당화하려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주인공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정한 소위 ‘조력자살이 가능한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약물 처방에도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도 없었고, 곧 사망이 임박한 환자도 아니었다. 단지 자살을 덜 괴롭고, 덜 불편한 방식으로 하려는 욕망이 있었을 뿐이다. 이 사람을 위해 돈을 받고 조력자살을 시행하는 스위스의 조력자살 단체는 더도 덜도 아닌 자살대행업자에 불과했다.

저자는 스위스 조력자살단체를 알아보기 전까지 남편과 여러 가지 자살 방법을 찾았다. 곡기를 끊고 죽는 방법은 2~4주 동안 배고픔을 참아야 하기에 쉽지 않았다. 남편은 죽기 전날까지 음식을 양껏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다량의 마취제를 사용해 죽게 하려 했지만, 충분한 양의 약물을 구매할 방법을 못 찾았다. 친구의 총을 빌려 죽게 하거나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웠다. 집에서 수면제를 잔뜩 먹이고 죽게 하려 했으나 차매 남편을 방치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어려워 포기했다. 마지막에 그들 부부가 찾아낸 것이 돈을 받고 자살을 도와주는 스위스 조력자살 업체였다. 이처럼 조력자살은 자살할 힘조차 없이 죽어가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단지 삶의 의미를 잃은 자들에게 돈을 받고 뒤처리해주는 자살 대행 서비스업이 되어버렸다.



자아 및 자존감 상실, 조력자살의 가장 큰 이유

조력자살에 대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캐나다 <조력자살보고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2016년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캐나다는 심각한 불치병으로 참을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 경우 조력자살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조력자살 원인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조력자살을 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미 있는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과(86.3%)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잃은 것’이었다(81.9%). 결국, 삶의 의미를 잃은 정신적 고통이 조력자살을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이유와 차이가 없다. 캐나다 조력자살 단체 대표 스테파니 그린이라는 의사는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라는 책을 통해 사람들이 조력자살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바로 ‘나 자신으로 남아 있을 때 죽고 싶다’는 것으로 병상의 모습이 망신스럽고, 남의 도움받는 것을 못 견디고, 삶의 의미를 더는 찾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 때문이라고 했다. 자아 및 자존감의 상실이 조력자살의 가장 큰 이유다. 이들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아’의 죽음을 먼저 맞이한 것이다.

한국인의 정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3년 한 신문사에서 스위스 조력자살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앓고 있는 질병으로는 암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만성 통증이나 척추 질환이 3명, 만성신부전 환자가 1명이었다. 반면 육신의 질병이 아닌 공황장애나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밝힌 경우가 7명이나 됐다. 질병이 없는 사람도 2명이 있었다. 한 회원은 인터뷰에서 “간병 문제나 경제적 문제로 안락사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기에 하루라도 가족

“내 자아가 시든 꽃처럼
보인다고 꽃가지를
미리 꺾어버리면 안 된다.
성도들은 죽고 싶어 하는
지체들에게
열매 맺는 자아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에게 부담을 덜 주고, 질이 좋게 죽기 위해 회원가입을 했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남의 도움 없이 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연명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안락사 기회가 없다면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건강을 잃은 내 상태를 ‘자아가 죽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살을 도와주는 손길이 아니다. 환자의 참 자아를 찾게 해주는 정신적 지지다. 참 자아는 육체 기능에 있지 않다. 내가 불치병으로 침상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고, 정신마저 혼미한 치매에 이르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참 자아의 실체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에게도 정신적 지지란 참 자아를 찾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육신과 정신이 연약한 때에도 당신이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가족과 이웃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인 알츠하이머 가정의 이야기나 캐나다의 죽음을 돕는 의사 이야기가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 돌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력자살 및 안락사 법안 마련되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 발생

내가 알던 자아가 죽었기에 내 목숨을 먼저 끊겠다는 것이 조력자살과 안락사의 실체라면, 의료진은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에 대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성찰을 해야만 한다. 질병 치료와 함께 환자를 위한 정신적 지지에 무게를 뒤편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과 국민이 이에 대해 숙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력자살 및 안락사 법안이 마련되면 의료 현장에 다음과 같은 큰 혼란이 발생한다.

첫째, 의료윤리가 훼손된다. 의사의 정체성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어서 환자를 죽이는 약물 사용법을 의과대학에서 배우게 된다면 의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돈이 생길 것이다.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라며 말이다. 의사가 어느 시점에 환자를 안락사시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의료윤리의 기본인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게 된다. 환자가 모든 주사를 맞고, 다양한 종류의 약을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의사가 나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 덕분이다. 만일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의사가 죽이는 약을 줄 수도 있다고 상상만 한다 해도 환자의 신뢰가 무너진다. 의료에서는 신뢰가 깨지면 어떠한 치료도 무효다.

둘째, 의사들의 사고가 부패할 위험이 크다.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 환자나 불치병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가 환자를 더는 돌보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아침 회진 때 아파 죽었다던 환자가 저녁 회진 때도 계속 아파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의사는 조력자살을 권하게 될 것이다. 실제 캐나다의 한 병원에서는 자살 충동으로 죽고 싶은 마음을 치료하러 온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했다. 어렵게 환자의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쉽게 치사약물이 담긴 주사 한 방으로 환자를 죽여 그의 고통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사는 밤새 고통받을 환자가 없어졌으니 걱정 없이 퇴근할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33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십 명의 조력자살을 도운 의사 베르트 카이저는 처음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력자살 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찾아들었다고 말했다.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의사들은 적극적 통증 치료와 정신적 돌봄 대신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자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나, 일상 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조력자살을 택한다면 이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 생명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처사다. 특히 치료자(Healer)인 의사에게 살인자(Killer)의 역할을 맡겨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다.

누구도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처지가 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연약한 중에 태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삶을 시작했고, 성장해서 잠시 남을 도우며 살다가, 다시 연약해지면 남의 도움을 받으며 죽어가는 것이다. 내 자아로만 여겨지던 화려한 인생의 꽃도 시들어 곧 지는 때가 온다. 그러나 꽃이 떨어졌다고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열매 속에는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씨앗이 담겨있다. 내 자아가 시든 꽃처럼 보인다고 꽃가지를 미리 꺾어버리면 안 된다. 성도들은 죽고 싶어 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열매 맺는 자아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계속).

맛있는 말씀 해설

“... 그의 몸에 얹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왕하 4:31~35)

일반적으로 ‘온전한 신앙’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모습 중 하나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해석의 전환’에 중점을 둔 신앙적 자세다. 환경을 바꿔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상황에서 잘 대응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친다(합 3:17~18). ‘환경의 변화’에서 ‘해석의 전환’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해석을 전환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해석을 전환해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나의 행동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4장 31~35절 말씀을 보면, 행동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로 이어진 사례가 나온

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사를 찾아온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게 해서 살리려고 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다. ‘엘리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가지 않고 사환을 대신 보내진 않았을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게하시를 대신 보내

넴 여인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삶을 더 아름답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엘리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

을 기억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해석의 전환을 뛰어넘어 실제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이를 위한 우리의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 변하지 않은 원인이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과정 등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원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상황에 대한 해석의 전환을 뛰어넘어 실제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으셨고, 엘리사가 직접 가서 살리기를 원하셨다. 이를 깨달은 엘리사가 행동을 다르게 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엘리사는 자신의 행동이 치유라는 변화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만일 엘리사가 해석의 전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자기 행실을 점검하지 않고, 수

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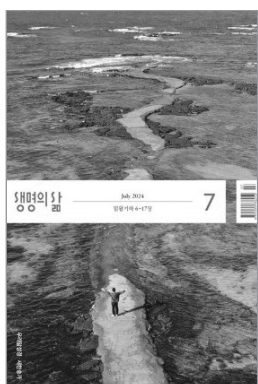
만일 우리가 상황을 달리 해석하려고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환경의 변화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사실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 도구

7월 8~14일

〈열왕기하〉 8:16~10:36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유다왕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 아달라다. 여호람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를 멸하시지는 않는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아합 집안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악을 행한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여호람)이 아합과 전쟁하다 다치자 유다왕 아하시야가 그를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간다. 그즈음 엘리사가 보낸 한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아합의 집을 멸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다. 예후의 말을 전해 들은 무리는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고 외친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은 때에 알맞게 사람

을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자비심 없는 과격한 예후는 자신의 성품대로 철저히 남김없이 아합 집안 사람들을 멸하며 하나님 뜻을 이룬다. 예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묵상하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배반한 예후는 이스라엘 나봇의 토지에서 요람을 만나 죽이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버린다. 또 도망하던 유다왕 아하시야를 추격해 므깃도에서 죽인다. 치장하고 예후를 맞이한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 창밖으로 던져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모든 죽음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다. 다음으로 예후는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하고, 아합 집안을 방문하러 가던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 42명도 죽인다. 예후는 여호나답과 손잡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게 숙한 남은 자들을 진멸하고, 거짓 대회를 열어 바알 숭배자들을 신당에 모아 죽인다. 또한 바알의 목상을 췌며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드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한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다. 예후는 아합 집안의 죄악을 심판하는 사명은 완수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예후에 대한 신앙적 평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아합 집안과 바알 숭배자들을 멸한 예후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 4대까지 왕위를 허락하신다. 그러나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은 아람왕 하사엘을 들어 북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신다. 예후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악한 아합 집안과 깊이 연결된 유다 왕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앙 면에서 내게 나쁜 영향을 계속 끼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며 관계의 분별력을 구하자. ▶예후가 요람을 만난 곳은 아합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나봇의 포도원’ 자리였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다음세대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속히 온전히 회개하자. ▶아합과 이세벨이 누린 부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았다. 악인이 누리는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자. ▶내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 바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내어 버리고, 하나님만 참신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역의 성취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어머니는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계십니다. 얼마 전 소화가 안 되고, 구토 증상 등으로 병원에서 CT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간에는 염증 외에 큰 이상이 없었는데,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담도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복부 MRI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평안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CT촬영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담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부 MRI 검사 이후 결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옆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저와 가족들의 마음에도 감사와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치료받는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도 감사를 잃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드시는 음식이 소화가 잘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2024 온누리교회 간사수련회에서 간사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

온누리 간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2024 온누리교회 간사수련회 120여 명 참석

2024 온누리교회 간사수련회가 지난 7월 3~4일 강원도 고성군 르네블루바이워커히호텔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간사공동체'를 주제로 개최됐다.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캠퍼스 간사 및 목회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간사수련회에서는 도착예배, 팀빌딩, 로잔강의, 기도회, 특강, 폐회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노치형 목사(목회행정)는 도착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서로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며, 세상에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간사공동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는 로잔운동의 의미, 로잔운동과 온누리교회, 제4차 로잔대회 중요성 등을 강의했다. 노 목사는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제4차 로잔대회에 현장에 참석해서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최용일 장로는 '스트레스를 푸는 음식과 레시피'를 주제로 현대사회 스트레스 원인과 해소방법, 건강한

식습관 등을 설명했다. 최 장로는 "온누리교회 간사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민 목사(양재 목회행정)는 폐회예배에서 "깨어 기도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간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범 간사(온누리M센터)는 "온누리교회 모든 간사님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바울·성지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

CGN '메시지 트립' 9월부터 출발

CGN에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는 성지순례여행 '메시지 트립' 참가자를 모집한다. CGN이 제작한 스토리다큐 10부작 <바울로부터>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번 여행은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로마, 그리스, 튀르키예 코스로 이영철 목사(국제사도바울센터 원장)가 성지를 소개하고 강의한다. 2차 여행부터는 그리스, 튀르키예 코스로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김동문 선교사(이슬람 전문가)가 인도한다. 3차 여행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익상 목사

(<이스라엘 따라 걷기> 저자)가 인도한다. 4차 여행은 다큐 <바울로부터> 출연자인 최종상 선교사가 함께 하며, 내년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목회자 대상으로 진행한다.

CGN '메시지 트립'은 튀르키예 파묵칼레 카트투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특전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CGN으로 문의하면 된다. 회비는 9월 1차 여행은 431만원(12일), 2~4차 여행은 373만원(11일)이다. 문의: 02-796-9800

가정 회복과 다음세대를 위한 달리기!

2024 달려라풍당 시상식, 총 22명 시상

2024 행복한 가정레이스 '달려라풍당' 시상식이 지난달 27일(목)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열렸다. CGN 임직원, 달려라풍당 참가자, 시상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달려라풍당 시상식에서는 감동사연상 4명, 차세대어린이상 5명, 최다/최장거리상 3명, 베스트포토상 10명이 수상했다.

최다/최장거리상을 수상한 정진욱 집사(동대문중앙공동체)는 "평소 즐기는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귀

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한데, 큰 상까지 받아서 영광"이라며 "달려라풍당에 계속 참여하며 동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 달려라풍당은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어졌다. 성도 3,895명이 참가해서 7천5백여 만 원(749,21,273원)을 후원했다. 달려라풍당 후원금은 다음세대 신앙 양육과 가정 회복을 위한 CGN 콘텐츠 제작 및 라이선싱에 쓰일 예정이다.

문의: 02-796-9800

"재정문제 해결 도와드립니다!"

2024 부채탈출119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부채탈출119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성도와 이웃들을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부채상담사역이다. 재정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james332023@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부채상담은 2~3회 진행되고, 경제정의팀 소속 상담위원과 연결된다.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보장 및 보호된다.

문의: 010-7636-3755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 참가자 모집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가 오는 7월 29일(월)부터 8월 3일(토)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기념채플관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안내 및 참가신청서는 경배와찬양 홈페이지(allenationen.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7000schoo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796-9700

NGO 더멋진세상,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7월 말까지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프리카 모리타니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40%에 육박한다. 그중에서 23.7%가 영양결핍이 원인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6월부터 모리타니 영양불균형 아동 가정에 고단백 영양 가루를 지원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나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다. 영양불균형 아동, 빈민 아동 등에게 식품키트, 고단백 영양 가루,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영양불균형 아동 450명, 2023년 영양불균형 아동 가족 150가구, 다르비다 유치원 220명, 조케마를 유치원 80명, 엘부라트 초등학교 300명을 지원했다.

문의: 02-2271-2246



7월 화요성령집회 'Be Bold'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7월 화요성령집회가 'Be Bold'를 주제로 막 올랐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7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9월 최

성민 목사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고후 12:7~12), 16일 최성민 목사 '낮선 길로 인도하는 명령 앞에' (수 1:1~9), 23일 최성민 목사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앞에' (갈 2:11~21), 30일 이서진 목사 '끝을 알 수 없는 여정 앞에' (출 16:1~10)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김다애 기자

일일 38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선착순 마감

일일 38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

비는 26만 원.

일일 38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임함재 목사(씨커스교회), 김의수 센터장(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최은영 교수(햇빛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7월 27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아이스쿨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가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7월 27일까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는 참가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도록 도와준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와 가정 회복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10-2657-1875

평택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7월 7일 시간: 16:00 장소: 평택온누리교회 5층 샤이닝홀로리

기성수	김세진	박수진	신경임	유창재	정 석	최명자
김민정	김지혜	배진경	신광민	이미형	지소영	홍은설
김병훈	박병규	설주희	신혜리	이행호	차정환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